

투데이 칼럼

행복 메시지

모든 일에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경기가 나쁘기 때문에... 날씨 때문에...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영어를 못하기 때문에...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재가 없기 때문에... 능력이 없기 때문에... 유산이 없기 때문에... 학벌이 없기 때문에... 배경이 없기 때문에... 지식이 없기 때문에... 리더가 없기 때문에... 회사 때문에... 직원이야 말을 안 듣기 때문에... 이런 조건들을 나열해 보면 내 인생을 다 쏟아 부어도 시간이 부족할 것이다. 이루어야 할 목표 앞에는 항상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들이 나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조건들이 '핑계화' 되어 늘 나와



김 양 옥

한국스피치리더십컨설팅 대표

친구처럼 따라 다니는 것은 아닌지요?  
결국, 이런 조건들을 극복하지 못하고 스스로를 합리화 하면서 나의 가치를 Discount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나의 가치 Bargain Sale! 50%! 365일, 연중무휴!"  
위 내용이 정말 우스운 이야기지만 우리 스스로 이런 이벤트를 매일 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대개 내 앞에 펼쳐지는 이러한 조건들은 내가 성장하려면 반드시 풀어야 될 중요한 숙제이자 물도 없는 기회일 것입니다.

물론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단지 일시적일 뿐!  
진정한 해결책은 아닐 것입니다. 스스로 깨고 나오면 새 생명을 가진 병아리가 되지만 남이 깨면 계란 후라이 신세가 된다고나 할까.  
철저히 조건과의 싸움에서 이깁시다.  
자연은 조건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이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말로 아무리 멋지게 묘사하고 장황하게 설명을 하더라도 그 현상은 그냥 그대로 존재를 하는 것입니다.  
주어진 조건을 과감히 돌파를 하

면 그 모든 것이 기회이자 선물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평생을 두고 그 조건이 해결될 때까지 나를 괴롭히겠죠.  
결국 이런 조건들을 극복하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마음먹었다고 바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마음만 먹으면 다 이뤄지는 세상 이면 사는 재미가 덜 하지 않을까요.  
지금 당장 내가 극복해야 할 만성적인 조건들을 찾아보시죠.  
이제 시간 핑계로 많은 것을 미룰 수 있는 시기가 아닙니다.  
벌써 3월이네요.  
우리 다함께 '조건 사냥'에 나서 보면 어떨까요.  
물러서지 말고 과감히 맞서서 철저히 조건들을 깨부숴보면 어떨까요.  
선택과 집중, 끈기 그리고 실천. 지금 당장 하나하나 할 수 있는 것부터 실천해 봅시다.  
성공적인 삶, 행복을 위하여!

독자제언

안전하고 행복한 명절을 위한 장거리 운전 팁

두 손 가득 선물을 들고 고향으로 향하는 귀성길을 떠올리면 함박웃음이 절로 나오지만, 많은 차들이 쏟아져 고항집에 언제 도착할지도 모르는 채 고속도로 위에서 진퇴양난에 빠져있는 상황을 상상 하면 많은 피로가 몰려온다.  
명절 당일엔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소요시간은 기본적으로 다섯 시간 이상 소요되고 길게는 여덟 시간 이상 도로 위에 있어야 할 일이 발생한다.  
이렇게 장시간 동안 도로 위에서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운전자의 신체 리듬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때문에 장거리 운전을 떠나기 전날 7시간 이상 숙면을 취하여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다음으로 차속에서 긴 시간 운전을 하는 동안 가벼운 사탕이나 초콜릿 등 당분이 들어있는 간식을 섭취하는 것이 분명 운전자에게 도움 될 것이고, 각종 효과가 있는 커피를 챙겨

마셔주는 것이 졸음운전으로부터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다.  
운전 시 갑자기 머리가 어지럽고 지끈거리며 아팠던 경험이 한번쯤 있었을 것이다.  
이는 자동차 실내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져 두뇌에 공기가 충분히 전달되지 않아 발생하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장시간 운전 시에 주기적으로 공기 환기 통해 실내 오염 물질을 내보내고 새로운 공기를 유입하여 쾌적한 장거리 운전 환경을 조성하자.  
마지막으로 도로위에서 잠시 쉬어 가는 시간이 필요할 때는 전국 도로 300여개에 설치되어 있는 졸음쉼터를 적극 활용하여 충분한 휴식을 취한 뒤 운전하도록 하자.  
쏟아지는 졸음을 참으려다 돌이킬 수 없는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적절한 휴식을 가진다면 우리 모두가 사고로부터 안전한 명절을 보낼 수 있을 것이다.  
정재훈 원산경찰서 교통관리계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퐁퐁 얼어붙은 美 공원 표지판



북극 한파로 미 중서부와 중북부 지역에 기록적인 한파가 몰아친 가운데 지난 30일(현지시간) 일리노이주 에번스톤의 공원 내 표지판이 눈과 얼음으로 덮여있다.

사설  
대도약 일자리로 말해야

전북도가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사업과 관련해 예타 면제를 따낸 것은 치하할 일이다. 그래도 대도약 시대를 열겠다는 도지사의 예전 발언에 대해 깊게 생각하고픈 지금이다. 도지사의 그 발언은 자신감이 넘쳐 보였다. 그때 도지사는 변화를 말했다. 그것은 도민들도 어느 정도 전망할 수 있는 것들이었다. 그런데 여기 다시 짚어 볼 게 있다. 대도약은 한 두 가지 현안의 성취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늘 요구하는 바이지만 전북의 대도약은 많은 일자리로 공감을 얻어야 한다. 도지사를 비롯해 고위 관계자들은 대도약의 성격에 정립해야 한다. 도지사는 얼마전에 도민을 먹여 살릴 기대주로 농생명 산업을 꼽았는데 그것은 농도 전북의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서였을 터이다.  
그리고 많은 부가 가치를 지닌 블루오션이라 판단했기에 그랬을 터이다. 그래서 지금 이 지면을 통해 다시 하고 싶은 말은 분명하다. 전북도는 대도약을 위해 농생명 분야에 많은 힘을 투입해야 한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많은 일자리를 창출시켜야 한다. 젊은이들은 물론이고 일반 도

민에게 일자리 창출은 최고 가치이다. 그 어느 때고 일자리 관심사를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는 주문이다. 그러므로 평소에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많은 생각을 하고 있어야겠다. 일자리 창출이 있어야 인구 유출을 막고 더 나아가 인구 유입을 있을 거 아니냐는 이야기다. 일자리 창출이야말로 전북의 뒤편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고 자존심을 되찾는 것이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또 있다. 전북 대도약 시대를 열기 위해 전북도는 탄소산업에 힘을 계속 실어야겠다. 탄소소재는 자동차, 항공, 조선, 기계, 건설, 의료 등 그 응용 범위가 넓다. 전기자동차와 자율 자동차는 물론이고 전북도가 의료기기 타깃 부품에도 눈길을 둔 것은 방향을 잘 잡은 거라고 판단된다. 그리고 항공기 원형 복합재 수리공정 기술개발 사업에도 참여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으니 해당 업계의 기대가 클 터이다. 도민들은 우리 전북이 탄소산업에 관련한 한국 최고의 선두주자이기를 바라고 있다.  
탄소 분야를 백년 먹거리 사업으로 키워야 할 책임이 있음을 도지사를 비롯해 고위 관계자들은 잊지 말아야겠다.

제3금융도시 지정 꼭 성취해야

전북도의 최대 현안 중의 하나는 제3금융도시 지정이다. 그런데 그 추진이 도전을 받고 있다. 지금은 소강 상태지만 지난해 다른 지역의 정착권이 노골적으로 발목을 잡았던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정부가 전북을 제 3금융도시로 지정하려하자 부산상공회의소가 발끈하고 나섰던 것은 다시 돌이켜 생각해도 분노의 대상이다. 그렇지 않아도 수도권권의 판국 걸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피곤한 터였는데 여간 불쾌한 게 아니었다. 그런데 문제는 또 있다. 전북을 챙겨줄 것처럼 하던 정부가 입장 정리를 미루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걱정되는 게 있다. 언제 또 있을지 모를 저들의 기금운용본부 흔들기를 미연에 막아야 한다. 전북 혁신도시로 이전한지 오래 되었고 그 성과가 대단하지만 저들의 음해는 또 반복될지도 모른다. 저번에 그 움직임이 심히 의심스러워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던 게 뉘튼 당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던 까닭이다. 저들이 그러는 것은 그 저의가 있어서일 거라며 했는데 그 의심이 틀리지 않

았다. 저들은 보수 경제 언론으로 막장 연출을 하더니 미국의 웰스 트리트저널을 동원해서까지 국내 여론을 어지럽히는 짓거리를 서슴치 않았다.  
국민연금 본부가 서울 쪽에 있을 때 낸 성과와 비교해보면 그것을 알 수가 있다.  
전북 혁신도시로 이전한 이후의 성과는 괄목할만하다.  
첫해에만 수익률이 7.28%(에 달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제 비야노소리를 못내게 더욱 성과를 올려야겠다. 전북도와 전주시는 마음을 독하게 먹어야 한다. 저들이 제 아무리 끈질기게 덤벼들어도 전북 제3금융도시 지정을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  
저들이 접근성의 문제를 들어 전주 패싱을 말하는 것은 가소로운 일이다. 국민연금 운용본부를 흔들어 뺄려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 혁신도시의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지금의 자리에서 우뚝서야 한다. 전북발전은 이끌려면 반드시 그래야 한다. 전북 제3금융도시 조성은 도민 모두의 염원이 아닐 수 없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

